

자본시장의 위기와 기독교의 역할

백석대학교 경상학부교수 김형철

I. 문제 제기

세계 자본시장의 주역인 투자은행들은 도산과 합병이라는 구조 조정 가운데 자본조달 기능이 원활하지 못하여 실물경제의 침체에 주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이들은 고수익을 추구하다 위험관리가 소홀했다는 비판과 아울러 신자유주의의라 지칭되는 미국식 금융자본주의의 위기, 금융인의 도덕적 해이, 카지노 금융자본주의 등에서 그 원인을 찾기도 한다.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돈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허무한 것이지만 하나님 말씀은 참된 현실"이라고 설교하였고, 영국 성공회도 빛의 닷에 걸린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을 올리며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세계의 중심이 되어 주시길 요청했다. 미국 교회는 신용회복 강좌를 개설하는 움직임으로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있다. 교회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투자가의 회개를 촉구하지만 자본시장의 건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구체적인 대안은 내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자본시장의 위기 발생은 레버리지에 의한 단기적인 고수익·고위험 추구하고 공매도를 통한 자본시장 조작과 같은 동물적 본성에 의해 지배되고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실물이 없는 것을 파는 거래행위, 위험의 실체가 불명확한 파생상품과 같은 기계적인 트레이딩, 투자자의 고지의무 위반 등이 범람하고 있어 산업구조 조정과 가치창조라는 본래의 기능을 간과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은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에서 오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감내할 수 있는 위험수준에 대한 오판이 위기를 불러오고 이는 개방경제하에서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인 수익극대화의 전략보다는 지속경영을 위한 적정 위험하의 투자 의사결정이 필수적이다. 위험-수익구조(risk-return profile)의 자산변환구조는 자유와 위험 추구가 생존이라는 전제하에서 가능하다는 단순한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고 단순 투명한 금융 상품으로 믿음과 목적에 근거한 사회책임투자(Socially Responsible Investing : SRI)라는 흐름이 자본시장의 한 영역에서 금융시장의 위기에 장기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은 자본시장에 따듯한 마음이 흐르는 땅의 회복 즉 환경 및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윤리, 그리고 삶의 공동체를 고려한 지속가능한 투자의 장으로서 시장을 정화하는 역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운동은 최근 유엔이 주도하는 책임투자운동과도 궤를 같이 하는데, 초기에는 기독교의 역할이 컸다. 기독교인들은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은 선한 관리인의 의무를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시작된 사회책임투자운동은 이윤 추구가 주된 목적인 금융기업에 신상품의 출시와 같은 단순한 마케팅 기법으로 전도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자가들의 자본시장 불신이라는 현 국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위험이 증대될 것에 대비하여, 건전한 자본시장의 발달을 위해 기독교로부터 시작된 사회책임투자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기독교인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여야 하는 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자본시장과 SRI

SRI는 본래 종교적인 보편적 가치에 근거한 투자로 아시아 SRI 운동본부(Asria)는 사회책임투자를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돕기 위한 메카니즘이며 투자자들이 그들의 가치와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일관되고 조직적인 운동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사회책임투자란 기업의 수익을 창출하고 체계적인 위험인 베타를 감소시키는 위험관리의 한 방법으로 장기투자전략을 구사하고 시장구조를 평가하는 프레임 워크라고 정의하고 있다.

자본시장에 영향을 주는 선진국의 사회책임투자펀드는 크게 세 종류로 설계되어진다. 먼저 종목선별(Screened)펀드이다. 이는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기준에 부합된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펀드로, 미국시장은 이 펀드가 SRI펀드의 68%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dvocacy)펀드인데 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같이 주주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펀드로 26%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Community Investment)펀드이다. 이는 저개발 국가에서 사탕수수나 커피 등의 가격을 제값을 주고 사는 기업에 투자함으로써 그 나라 어린이나 여성들을 저임금에 의한 노동 착취로부터 보호하는 등 인류 공영과 지역사회 발전에 목적을 둔 펀드이다.

미국의 SRI펀드의 약 70퍼센트 이상이 기업활동을 감시·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나머지는 주주행동, 지역사회투자 등을 하는데 규모가 작은 공동체투자 외에는 자본시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미국의 SRI펀드 규모는 1995년 6,400억 달러 정도였던 것이 10년 만에 2조 2,900억 달러로 급증했다. 이는 2005년 말 기준으로 전체 펀드 투자금의 10%에 달한다. 유럽 역시 1999년 연기금의 지속가능투자법이 통과되고 본격적으로 시장이 확대되면서 336조 원 가량이 SRI펀드에 투자되고 있으며 전 세계 SRI펀드의 규모는 무려 3,000조원에 이른다.

그간 국내에서 판매된 SRI공모펀드는 총 29개로 규모는 1조 3,818억 원이었다. 이 중 국내 주식투자펀드가 11개로 4,238억 원이었으며 해외 주식투자펀드가 18개로 9,580억 원이었다. 국민연금의 SRI투자자금 4,400억 원까지 합하면 국내에서 공식적으로 SRI방식으로 운용되는 자금은 1조 8,218억 원이었다. 여기에 사학연금 등 일부 기관투자자의 위탁자금까지 감안하면 국내 SRI시장규모는 대략 1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이다. 국내에서 판매되는 SRI펀드는 환경·사회적으로 책임감이 높고, 경제·지배구조적으로 지속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회책임투자가 자본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연구한 논문들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¹⁾ 연구자들마다 상이하게 나타나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자본시장과 SRI와의 관련성이 크다는 연구결과가 더 많다. SRI펀드와 투자성고가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²⁾로는 사회적 스크리닝된 펀드의 수익률과 사회적 스크리닝을 받지 않은 펀드와의 수익률 간 확률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사회적 스크리닝이 기업의 정량적인 경영전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이 있으며, 스크리닝된 펀드와 그렇지 않은 펀드 간 위험조정 수익률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연구가 있다.

반면 SRI펀드와 투자성과와의 관계가 존재한다고 규명한 연구들³⁾을 살펴보면 기업의 평판

1) 상장협연구 제 57호 P.114~117참조

2) Hamilton, Jo, & Statman(1993)은 스크리닝된 펀드의 수익률을, Guerard(1997)은 1987년~1994년 사이 가치와 성장요소를 결정짓는 예상수익 모형을, Bauer, Koedijk, & Otten(2002)은 1990년~2001년 사이 103개국의 스크리닝된 뮤추얼펀드들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이나 명성이 사회적 책임 등급분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좋은 환경적 요소는 기업의 자산에 대하여 양(+)의 영향을 미치고 미래에 환경규제가 기업재무에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은 환경기준을 가진 기업은 보다 높은 주가순자산비율을 가지는 경향이 있으며, 기업의 시장가치와 기업이 보유한 환경수준은 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하였다. 이외에도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기업의 재무적 성과 간에 양(+)의 관계가 있으며 높은 환경효율성 등급의 기업은 높은 가치평가를 받고 기업의 운영성과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⁴⁾

사회책임투자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투자함으로써 보다 높은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 다우존스지속가능성지수(DSI 400)는 일반주가지수(S&P 500)와 비교 시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아시아 사회투자협회의 2002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주요 지속가능성 관련 지수들이 일반 투자지수에 비해 5년 이상의 장기투자에서 초과수익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⁵⁾

SRI펀드는 지속가능한 기업에 투자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지만, 수익률의 변동성이 배당주나 가치주 펀드에 비해 베타나 표준편차 등의 지표에는 아직 유의한 결과가 검증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 사회책임투자가 체계적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은 검증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실증적인 연구결과와는 달리, 최근 지구촌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유엔에서도 책임투자원칙(PRI: Principles for Responsible Investment)⁶⁾을 발표하여 전 세계금융기관들이 투자회사 결정시 투자대상기업의 환경, 사회, 기업지배구조 즉 ESG 문제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세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유엔이 지속경영을 이루기 위한 지구온난화와 같은 지구촌의 위기대응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4월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발표된 책임투자원칙에 네델란드 공무원 연금,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일본 수미토모신탁 등 전 세계 80여개의 금융기관들이 서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지난 2007년 농협CA자산운용, 미래에셋, 알리안츠, SH자산운용, 아크투자자문 등의 금융기관들이 서명에 참여하였다. 이는 금융산업이 사회적 책임투자를 통하여 수익과 위험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해관계자의 이해를 조정하는 국제기구의 협력과 자본시장에서 투자상품의 위험을 줄이는 것은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것

3) Waddock & Graves(1997)는 KLD의 SRI자료와 포춘지의 기업평판자료를 비교하였으며 Russo & Fouts(1998)는 1991년과 1992년 243개 주식을 대상으로 성과분석을, Repetto & Austin(2000)은 미국 13개 펄프제지 제조회사를 대상으로 환경리스크의 경제적 효과를, Dowell, Hart, Yeung(2000)은 1994년~1997년 사이 S&P500의 제조업과 광업에 속하는 기업의 환경정책과 시장가치평가를 연구하였다.

4) Orlitzky, Schmidt, & Rynes(2003)은 KLD등의 기관 자료를 이용한 기업의 사회적 성과와 기업의 재무성과와의 관계를 메타분석을 통하여 분석, Guenster, Derwall, Bauer, & Koedijk(2005)는 1996년~2002년 사이 이노베스트가 다루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노베스트의 평가체계를 분석하였다.

5) ASrIA('02), "SRI and Pension in Asia"

6) PRI는 2004년 파리에서 개최된 UNEP/FI(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산하의 AMWG(Asset Management Working Group)회의에서 ESG이슈가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 하에 코피아난 UN 전 사무총장의 주도로 유엔 환경, 프로그램, 금융, UNEP/FI와 선진금융기관, 다양한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여 작성되었다. UN이 발표한 투자원칙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원칙: 우리는 ESG요소들을 투자회사 결정시 적극 반영한다.

제2원칙: 우리는 투자철학 및 운용원칙에 ESG 요소들을 통합하는 적극적인 투자자가 된다.

제3원칙: 우리는 투자대상에게 ESG요소들의 정보공개를 요구한다.

제4원칙: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준수와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제5원칙: 우리는 금융산업의 PRI이행에 있어 그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6원칙: 우리는 PRI이행에 대한 세부 활동과 진행 상황을 외부에 보고한다.

이라 할 수 있다.

Ⅲ. 사회책임투자와 기독교

사회책임투자의 기원은 기독교에서 시작되었다. 1920년대 미국 교회에서는 성경에 반(反)하거나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기업의 주식, 이른바 죄악 주식(Sin Stock)을 투자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운동이 제기되었다. 장로교에는 New Covenant Fund 4개가 있는데 1927년부터 투자를 시작하였으며 윤리투자와 도덕적 가치투자전략을 받아들였다. 장로교의 펀드는 청지기적 투자 가이드라인 원칙⁷⁾을 적용하고 있는데, 부정적 가치식별 측면은 알코올, 담배, 도박, 낙태 등 생명윤리 위배, 핵에너지 금지 등에 종교가치를 적용하고, 긍정적 가치식별로는 사회적 가치 즉 사회·환경 경영이 우수한 기업에 투자하며 인권과 노동권 이슈 등을 병행하여 실행한다.

1971년 미국 감리교 신자들은 근대적 의미에서 최초의 사회책임투자 펀드인 파스월드펀드(Pax World Fund)를 설립했다. 이 펀드의 투자전략은 군수산업, 담배산업, 도박산업 등 감리교의 종교적 신념에 반하는 기업 등을 투자에서 제외시키고, 긍정적 윤리기준을 적용하여 기업의 수익, 사회,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상품, 서비스, 기업에 투자한다. 재침례교(Mennoites) 역시 청지기적 투자 가이드라인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종교가치를 적용하고 알코올, 담배, 도박, 낙태, 핵에너지 등을 금지하고 사회적 가치를 병행하여 투자한다.

퀘이커교는 윤리투자운동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 펀드로는 Timothy Plan 3개가 있다. 티모시플랜은 퀘이커 교회의 윤리투자 정책 및 가이드라인⁸⁾에 따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과 기독교 윤리에 맞는 기업에만 투자하여 펀드를 운용한다. 한편 술·담배 제조사, 카지노 등 사행사업을 운영하는 회사 및 포르노 제작사, 포르노 유통 채널인 인터넷 기업이나 낙태와 관련된 병원, 보험회사, 제약회사 등은 투자제외 대상이며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영화를 제작하는 엔터테인먼트 기업, 동성커플 우대정책을 표방하는 기업, 혼외 이성커플 직원들을 지원하는 기업이나 피임제품을 만드는 제약업체도 투자에서 제외한다.⁹⁾ 기준이 엄격한 편인 티모시플랜은 뉴욕증시의 에스앤피(S&P)500 업체들 가운데 절반 정도를 피한다. 이처럼 투자처가 제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티모시플랜(Timothy Plan)이 운용하는 미국 뮤추얼펀드 업체인 라지/미드캡밸류펀드는 5억 달러 가량

7) 1758년 런던과 필라델피아 총회 선언을 기준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인 음식, 의약품, 의류, 주택, 난방과 조명, 수송 통신 등에 투자하고 반대로 화학무기, 생물학무기, 핵무기, 자동화된 전투기, 지뢰, 독극물 등에는 투자를 금지한다.

8) 다섯 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첫째 음식, 의약, 의복, 주택, 광열, 교통, 통신, 여가 등 일상생활에서의 수요에 부응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한다. 둘째 생화학무기, 핵무기, 대인무기, 자동화 무기 등을 개발하거나 제조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군수산업과 거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군수거래에 대한 관리 성향, 군수품 관련 매출액 비중, 거래대상 물질 및 서비스의 종류, 군수거래 증감에 대한 기업의 입장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투자 여부를 판별한다. 핵심 방위산업 공급업체 및 연구개발 업체, 기업 매출액의 3% 이상이 군수산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를 회피하여야 한다. 넷째 담배, 술, 사치품, 부동산 투기 등 사회적 가치에 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및 서비스와 직접 관련되는 기업에 투자를 회피하여야 한다. 다섯째 긍정적인 가치식별 항목들(환경보호 및 오염예방, 인종차별 정책을 반영한 고용 및 처우, 종업원 보건 및 안전, 광고 및 금융관행을 포함한 기업의 일반 경영행위, 주주에 대한 경영 및 사회책임 정보의 공개, 토착민의 권리와 문화의 존중, 노동조합 및 종업원단체와의 관계)에 있어서 동종업계에서 평균 이상의 성과를 기록한 기업에게 투자우선 순위를 부여한다.

9) 한겨레신문 2008. 1. 14일자

을 운용하는데 지난해 종교펀드 중 가장 높은 17%의 수익률을 올렸으며, 지난 5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18.6%나 된다.

미국 성공회¹⁰⁾는 청지기사명을 주요 원칙으로 하며 1972년 투자위원회를 발족하여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을 정하였다. 영국 성공회는 윤리투자자문 운용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청지기펀드(1984)에 이어 종교기관 펀드들을 운용하고 있으며, 영국교회 전체의 윤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독교윤리투자그룹(1988)이 조직되어 윤리투자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윤리투자 리서치기관과 협력하여 기업을 가치식별하며 주주운동단체와도 연대하여 윤리투자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1990년 중후반에 출범된 카톨릭계펀드의 현황을 미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Aquinas Fund 6개가 있다. 자산규모 2억 달러인 이 펀드들은 미국 주교회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으며 투자제외 보다는 기업 정보공개와 주주운동에 적극적이며 펀드개발을 우선 시하는 선별투자를 선호한다. 그러나 주택, 차별, 대량 살생무기, 낙태나 피임 등의 윤리적 사회이슈도 다룬다. 아베 마리아 뮤추얼펀드(Ave Maria Mutual Fund)는 개인투자가 중심이 되며 고용평등, 환경, 여성 이사비율 등의 주제에 있어 카톨릭 신념에 따른 가치식별을 한다. 특히 여성 고용평등에 관심이 많다. 낙태·포르노·동성애·동거 등에 관계된 기업들을 투자에서 제외하면 시가총액 기준으로 미국 내 상위 3000개 기업 중에서 400개 기업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야 했으나, 이 펀드는 2005년 1월 설정된 이후 누적 수익률 104%, 1년 수익률 12.3%를 달성했다.

10조 달러 규모의 미국 뮤추얼펀드 시장에서 종교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10년 전 미국 내 종교펀드의 규모는 4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35개의 종교펀드가 현재 운용 중이며 규모도 170억 달러에 달해 40배가 넘게 성장했다. 이 밖에도 20억 달러를 운용하는 장로교계의 뉴커버넌트(Presbyterians New Covenant)펀드와 100억 달러를 운용하는 남부침례교계의 가이드스톤(Guidestone)펀드, 10억달러에 달하는 남부침례교(Southern Baptist)펀드등 기독교펀드들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의 윤리펀드의 성장추이를 보면 1997년 227억 파운드로 55.1%를 차지하던 교회 윤리펀드 액수는 1999년과 2001년에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그런데 교회 윤리펀드가 차지하는 비율은 1999년에는 522억 파운드 중 26.8%이었으나, 2001년에는 2,245억 파운드 중 5.8%로 이전에 비해 급격하게 낮아졌다. 이에 비해 1997년에는 전혀 없었던 연금기금의 윤리펀드가 1999년에는 47.9%로 최고액이 되고 2001년에는 그 액수가 3배 이상 커졌다. 또한 1999년까지도 전혀 없던 보험회사의 윤리펀드는 2001년에는 45.9%로 최고액을 차지하고 있다. 초기 교회의 비중은 컸으나 차츰 영향력이 미비하게 되었다. 교회는 물론 연금기금과 같이 공익을 우선하는 기관의 윤리펀드가 아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회사의 윤리펀드가 급격하게 늘어난 사실이 흥미롭다. 보험회사가 이런 윤리투자 펀드를 늘린다는 것은 수익성 또한 담보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IV. 신앙과의 통합전략

성도의 시각에서 세상과 신앙과의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 세상은 창조된 세계로,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만물이 고통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도

10) 미성공회는 1971년 남아공에서 GM을 퇴출시키는 것을 사회이슈로 하여 주주결의안을 낸 최초의 종교기관

의 입장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회복이 필요하다. 즉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받은 기독교와 법으로 유지되는 세상 간의 긴장관계를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한 전략적인 접근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전한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교회의 역할은 크게 네 가지로 대별된다.

첫째,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이다.

기독교인의 윤리투자는 투자의 가이드라인에서 청지기원칙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 청교도들은 오늘날처럼 돈을 개인의 소유물(ownership)로 보지 않고 사회적 재화로 보았는데 이는 청지기 의식(stewardship)때문이었다. 이러한 청지기 의식이 바탕이 될 때, 수익성과 더불어 윤리성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익성이 앞서는 투자를 포기하고서라도 윤리성에 따른 판단을 좇아가는 기독교펀드의 투자가 가능한 것이다. 이는 판매회사의 이익극대화 에 의한 일반적인 판매기법(salesmanship)과는 다른 소명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기업은 단기적이고 판매보수가 높은 회전을 중심의 영업방식을 지양하고 레버리지 축소를 통하여 감내할 수 있는 위험분석을 통한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둘째, 스크린 기준의 통합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기독교펀드에 있어 가치의 스크리닝 기준은 담배와 알코올, 노동, 환경, 도박, 무기 등이며 최근에는 이에 더해 지구온난화, 동물실험, 기업지배구조, 유전자 조작, 정치 후원, 포르노, 이해당사자 정책 등 다양하다. 긍정적 전략은 기업 경영진에게 주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법적인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며 이 같은 주주권리 행사는 기업에게 큰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대단한 힘이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보면 투자의 첫 단계로는 합법적이면서 재무적 성과가 있는 기업들 중에서 기독교의 가치기준에 부합되는 기업을 발굴하여 적극 투자하는 것이다. 이러한 펀드로는 수질오염과 오존층의 파괴문제, 스모그와 산성비, 유전자 조작, 식품문제 등 환경위험의 이슈와 관련된 펀드, 물이나 대체에너지관련펀드, 유기농펀드,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는 탄소펀드, 환경을 고려한 에코펀드, 투명한 기업에 투자하는 지배구조펀드 등이다.

셋째, 녹색금융 인프라구축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윤리투자는 교회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가 함께 추구해야 할 투자 방안이라 하겠다. 법과 윤리의 딜레마를 해결하는 관점에서 우선 기독교의 윤리와 법이 서로 상충하지 않을 경우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서로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제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현 정부의 새로운 이슈인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 대책으로 신자와 불신자 할 것 없이 창조질서 회복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탄소 녹색성장에 2012년까지 5조원을 투자하기로 한 현 정부에 있어 이 산업을 뒷받침할 녹색금융도 자본시장의 기능이 활성화될 때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투자대상으로는 펀드멘탈이 우량한 기업 중에서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같은 녹색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종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독교 경제교육의 필요성이다.

기독교 세계관을 기초로 한 경제교육을 위한 교과목 개발이 교수들의 임무이다. 또한 신학과 학제적인 경제신학을 정립하고 가치식별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독교 차원의 윤리기준을 만들어 낼 연구기관의 마련이 필요하다. 이뿐 아니라 기독교 교수들이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신자 개개인이 기독교 윤리기준에 맞는 사회책임투자펀드에 투자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V. 결론

화폐와 시장은 피조물인 인간이 지혜롭게 만든 걸작품이다. 그러나 글로벌한 환경에서 상품판매기법은 발달하였지만, 판매 시스템에 있어 선한 관리인의 의무가 부족할 때 시장은 레버리지 확대에 의한 단순한 거래기법만이 존재하고 시장의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사회책임투자펀드들이 마켓 타이밍을 포착하는 투자전략보다 투자성과가 좋다는 보장은 없지만 인간이 만든 시장에서 지속가능성과 선량한 관리인의 의무가 우선되는 것이 기독교적 가치관이라 할 수 있다.

기독교 윤리기준에 맞는 사회책임투자펀드는 주주의 역할과 소명에 새로운 경각심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기독교인들의 관심이 필요시 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윤리기준에 있어 기업의 입장과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 그러한 기업을 발굴하여 지원하고 시대에 맞는 윤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기독교 입장에서든 자연과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로 하나님나라의 가치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책임투자는 사회문제인 동시에 교회문제이다. 따라서 원죄에 의한 세상과 교회의 긴장과 더불어 세상의 빛으로, 서로 윈-윈하는 성숙한 전략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천하는 파트너로서 서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김형철, 윤리투자와 기독교펀드, 기독교와 학문 1권, 2008.
- 김형철, 사회책임투자의 실현방안, 로고스경영, 2007.
- 노희진,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사회책임투자, 상장협연구 제 57호, 2008.
- 대한상공회의소, 사회책임투자의 글로벌 동향과 시사점, 2007.
- 에이미 도미니, 사회책임투자, 필맥, 2004.
- Donald M. Hallberg, "Mission Endowment Fund", A Guide for congregations ELCA Foundation, 2002.
- John hancock, *An Investment's Guide to ethical & society responsible investment funds* (London through KCC: (2005).
- Mary O'Sullivan, "Pension Fund Socialism or Plus a Change Corporate Governance and Retirement"
- Michael Keeley, *A Social-Contract Theory of Organizations* (Notre Dame: Univ. of Notre Dame Press, (1988).